Session 3 David Anointed in Bethlehem (1 Sam. 16:1-13) 제 3 장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삼상 16:1-13)

I. DAVID ANOINTED IN BETHLEHEM

베들레혬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A. We see the rejection of King Saul in chapter 15 and the anointing of David in chapter 16. The high point of Samuel's ministry was to anoint David as the second king of Israel.

우리는 15 장에 사울 왕이 왕으로서 거절되는 것을 보며, 16 장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게된다. 사무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이었다.

B. Saul's work for God had ended, but God's work would go on. This chapter is not so much about David as it is about God. We see God's personality in His choosing of "weak ones" (1 Cor. 1:28).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일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 장은 다윗에 대한 장이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는 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연약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에서 그분의 성품을 보게 된다 (고전 1:28).

C. God's rejection of Saul and choice of David was decisive, clear, and final. Yet it took over ten years for the story to unfold. God usually works behind the scenes. His sovereignty was demonstrated in the context of their personal choices. His purposes come to pass, but not as fast as we would want.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것은 절대적이고, 명확하며, 최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스토리가 펼쳐지기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 그분의 주권은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선택들 가운데 나타났다. 그분의 목적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이뤄지지는 않는다.

II. SAMUEL WENT TO BETHLEHEM TO ANOINT A NEW KING (1 SAM. 16:1-3)

사무엘이 새 왕을 기름 붓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다 (삼상 16:1-3)

A. The Lord told Samuel to go to Bethlehem to anoint a new king.

주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새 왕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다.

¹The LORD said to Samuel, "How long will you mourn for Saul, seeing I have rejected him from reigning over Israel? Fill your horn with oil, and go; I am sending you to Jesse the Bethlehemite. For I have provided Myself a king among his sons." Samuel said, "How can I go? If Saul hears it, he will kill me." The LORD said, "Take a heifer with you, and say, 'I have come to sacrifice to the LORD.' "Then invite Jesse to the sacrifice, and I will show you what you shall do; you shall anoint for Me the one I name to you." (I Sam. 16:1-3)

- ¹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u>가라</u>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u>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u> (한글 KJV: <u>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u>) 하시는지라 ²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³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u>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u>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삼상 16:1-3)
- B. God's zeal and desire for David: The Lord raised David up as king for His pleasure and purpose. Samuel taught David that he was anointed as a king "for God" or for God's pleasure. He repeatedly used specific language denoting His zeal such as He sought "for Himself" (13:14); I have provided "Myself" (16:1) and you shall anoint "for Me" a king (16:3).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갈망: 주님은 주신 자신의 기쁨과 목적을 위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을 나타내는 특정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셨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13:14), 내가 "나를 위해" ... 예비하셨으니라 (16:1),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하여" 한 왕을 기름 부으리라 (16:3).

¹⁴The LORD has sought for Himself a man after His own heart (1 Sam. 13:14)

¹⁴ ...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 (삼상 13:14)

¹For I have provided Myself a king among his sons. (1 Sam. 16:1)

- ¹ ...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글 KJV: 내가 <u>나를 위해</u>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삼상 16:1)
- 3...you shall anoint for Me the one I name to you." (1 Sam. 16:3)
- 3 ...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u>나를 위하여</u> 기름을 부을지니라 (삼상 16:3)
- C. David knew that he was chosen first for God, thus he responded by diligently seeking Him, longing to worship, love, and obey God and see His beauty (Ps. 27:4; cf. 18:1; 31:23; 36:8)

다윗은 자신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택함을 받았음을 알았기에, 그는 성실하게 그분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갈망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다 (시 27:4; 비교. 18:1; 31:23; 36:8).

³But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u>for Himself</u> him who is godly. (Ps. 4:3)

- 3 여호와께서 $\overline{\text{사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 (시 4:3)
- D. The elders of city trembled when Samuel arrived in Bethlehem (16:4-5). They assumed that if a prophet visited them, it would be negative and to address their failure. Many people carry a residual guilt in their hearts so the very idea of receiving prophetic ministry unsettles them.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떨며 그를 맞았다 (16:4-5).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을 방문하는 일은 부정적인 일이며 그가 그들의 실수에 대해 말할 것으로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남은 죄책감 때문에 예언적인 사역을 받는 것 자체를 불안하게 여긴다.

⁴So Samuel did what the LORD said, and went to Bethlehem. And the elders of the town trembled at his coming, and said, "<u>Do you come peaceably</u>?" ⁵And he said, "Peaceably; I have come to sacrifice to the LORD. Sanctify yourselves, and <u>come with me to the sacrifice</u>." Then he consecrated Jesse and his sons, and invited them to the sacrifice. (1 Sam. 16:4-5)

 4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u>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u> 5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u>와서</u>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삼상 16:4-5)

- III. THE LORD CORRECTED SAMUEL'S VIEW OF THE NEW KING (1 SAM. 16:6-11) 사무엘의 새로운 왕에 대한 관점을 주님이 교정해주심 (삼상 16:6-11)
 - A. Samuel went to Bethlehem but without knowing all the details of God's will.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의 전부를 알지 못한 채 베들레헴으로 갔다.

⁶So it was, when they came, that he looked at Eliab and said, "Surely the LORD's anointed is before Him." ⁷But the LORD said to Samuel, "Do not look at his appearance or at his physical stature, because I have refused him. For the LORD does not see as man sees; for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⁸Jesse called Abinadab, and made him pass before Samuel. And he said, "Neither has the LORD chosen this one." ⁹Then Jesse made Shammah pass by. And he said, "Neither has the LORD chosen this one." ¹⁰Thus Jesse made seven of his sons pass before Samuel. And Samuel said to Jesse, "The LORD has not chosen these." ¹¹And Samuel said to Jesse, "Are all the young men here?" Then he said, "There remains yet the youngest, and there he is, keeping the sheep." Samuel said to Jesse, "Send and bring him. For we will not sit down till he comes here." (1 Sam. 16:6-11)

 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u>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u>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u>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u>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u>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u> 하시더라 8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한글 KJV: 224)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삼상 224)

B. *The LORD does not see as man sees*: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God looks at the decisions and intentions of the heart. This is one of most important statements in Scripture (v. 7).

주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결정과 의도들을 보신다. 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7 절). C. *The LORD looks at the heart*: People measure themselves and others by *externals* (performance, gifting, achievement, money, position, etc.), while God measures by *internals* (goals, intentions, decisions, and movements of the heart toward God).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능력, 은사, 성과, 돈, 위치, 등), 하나님은 **내적인 것**으로 판단하신다 (목적, 의도, 결정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움직임).

- 1. David's understanding of God's heart was formed by the truths that God revealed to Samuel about how God chose him. This dynamically affected David's view of himself.
 -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때 그분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진리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을 보는 관점에 큰 영향을 끼쳤다.
- 2. He saw himself as God's beloved (Ps. 60:5), as the apple of God's eye (Ps. 17:8), as one in whom God delighted (Ps. 18:19), and as one whom God treated with gentleness (Ps. 18:35).
 -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 여기며 (시 60:5),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았으며 (시 17:8),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며 (시 18:19), 자신을 주께서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자로 알고 있었다 (시 18:35).
- 3. The Lord doesn't evaluate His people in the same way that others do, with accusation. A new paradigm to evaluating life, God define His people by the intentions of their heart. He sees our heart motives (1 Cor. 4:5) and our inner qualities (Ps. 29:2). The Lord calls forth beauty in His people, even in its budding virtues. The spirit of accusation hinders the heart.
 -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판단하실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는 삶을 평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마음의 의도로 그들을 정의하신다. 그분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며 (고전 4:5), 내면을 살피신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의 내면에서 싹트고 있는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서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신다. 정죄하는 것은 심령을 방해한다.
- 4. Sometimes we look at *negative externals* (our lack of gifting, or opportunity or position) and wrongly conclude that we have no future in God's purpose.
 - 때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부분을 보며 (우리의 은사가 부족하거나, 기회가 적고 위치가 낮은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 D. *Do not look at his appearance*: his externals, as in performance, accomplishments, skills, position, wealth, failures, etc. An uneducated, rural farm boy is chosen as the Lord's anointed.
 -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는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역량과 성과, 기능, 위치, 부, 과거의 실패 등을 말한다. 교육받지 못하고 시골 농장에 살던 소년은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
- E. David found his primary identity (his sense of value and success) in who he was in his relationship with God. He measured his success in life by how much he grew in grace and by the measure to which he was empowered to walk in obedient love for God and meekness toward people.

다윗이 자신의 주요 정체성(가치관과 성공의 개념)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이다. 그는 자신의 삶의 성공을 평가할 때, 자신이 은혜 가운데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적인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온유함 가운데 행할 수 있었는지로 평가했다.

F. **Leadership Lesson**: God chooses differently than man by esteeming unknown people in unknown places for His purposes. We must not choose people with great gifts if they lack a servant spirit. Conversely, do not give up your calling because you have not had opportunity yet to walk in it.

리더십 강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과는 달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그분의 목적을 섬겨나가는 것을 높이 여기신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은사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종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당신이 부르심 가운데 행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 IV. SAMUEL ANOINTS DAVID AS THE NEW KING OF ISRAEL (1 SAM. 16:11-13)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음 (삼상 16:11-13)
 - A.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 (16:13) as it had once rested on Saul (10:6, 10; 11:6). God worked in David's life—in his muscles and his mind. *Spirit* in Hebrew means breath or wind.

여호와의 영이 사울 위에 임했던 것처럼 (10:6, 10; 11:6), 다윗 위에 임했다 (16:13).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가운데 임했으며, 그의 근육과 마음 위에 임하셨다. 히브리어로 성령(Spirit)은 숨(breath) 또는 바람을 의미한다.

¹²So he sent and brought him in. Now he was ruddy, with bright eyes, and good-looking. And the LORD said, "Arise, <u>anoint him</u>; for this is the one!" ¹³Then Samuel took the horn of oil and anointed him in the midst of his brothers; and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 from that day forward. So Samuel arose and went to Ramah. (1 Sam. 16:12-13)

¹²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u>기름을 부으라</u> 하시는지라 ¹³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삼상 16:12-13)

- B. Some suggest that when a leader anointed someone, they were *pledging themselves* to the recipient. For example, when the elders of Judah (2 Sam. 2) or of Israel anointed David (2 Sam 5:3), they were making a commitment to David. When one was anointed by the command of God to be king, then it was God who was committing Himself to that new king.
 - 어떤 사람은 리더가 어떤 이를 기름 붓는 것은 이를 받는 이에게 **맹세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유다의 장로들 (삼하 2 장) 혹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삼하 5:3)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이들은 다윗에게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새왕을 세우시는 일에 있어 그에게 헌신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 C. *Leadership Lessons*: God knows where we are, and His timing is never late. God needs no help in locating "His Davids." We don't have to strive to get attention from the people in charge.

리더십 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며, 그분의 시간은 절대 늦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다윗들"을 찾아내기 위해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1. Do not confuse offering oneself to serve with insisting on recognition or receiving a position of honor. Some people misapply this and "wait to be asked" to serve. The Scripture teaches us to be diligent in serving, yet not push or expect to receive more recognition or honor.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에 드리는 것과,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인정받는 직책을 얻는 것 사이를 혼동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이를 잘못 적용해서, 섬기는 것을 "요청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실히 섬기되, 더 많은 인정과 명예를 얻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2. When we seek to measure how much people value or honor our work, it can easily result in complaining. When we know that God sees us, then we can serve with a free spirit.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평가하려고 할 때, 이는 쉽게 불평으로 이어지곤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

V. DAVID ACCEPTED IN THE ROYAL COURT (16:14-23)

다윗이 왕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됨 (삼상 16:14-23)

A. Note the two parallel statements: The Spirit rested *on* David (v. 13) and departed *from* Saul (v. 14). This theme was repeated four times (16:18; 18:12, 14, 28)—*the LORD was with David*. David delivered Saul from spiritual oppression and then Israel from Goliath, an oppressing giant.

대조를 이루는 두 설명을 주의 깊게 보라: 성령님이 다윗 **위에** 임하심 (13 절), 그리고 사울**로부터** 떠나심 (14 절).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있다 (16:18; 18:12, 14, 28) - **주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눌렸을 때 그를 구해줬으며, 거인 골리앗으로부터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¹⁴The Spirit of the LORD departed from Saul, and a distressing spirit from the LORD troubled him. ¹⁵And Saul's servants said to him, "Surely, a distressing spirit from God is troubling you. ¹⁶Let our master now command your servants, who are before you, to seek out a man who is a skillful player on the harp. And it shall be that he will play it with his hand when the distressing spirit from God is upon you, and you shall be well." ¹⁷So Saul said to his servants, "Provide me now a man who can play well, and bring him to me." (1 Sam. 16:14-17)

 14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5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16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17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삼상 16:14-17)

B. *The Spirit departed from Saul*: Saul's character gradually became worse. He went from being a national hero to becoming despondent and melancholic to becoming an angry, murderous tyrant. The Spirit had come on Saul in the beginning of his reign about 25 years earlier (10:6, 10; 11:6).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의 성품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다. 그는 국가의 영웅에서 낙담하고 우울한 사람으로, 그리고 분노하며 사람을 죽이는 폭군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여호와의 영은 25 년 전 사울이 통치를 시작하던 초기에 그 위에 임했었다 (10:6, 10; 11:6).

C. *A distressing spirit*: The Lord allowed Saul to be demonically oppressed as an expression of divine judgment on Saul's stubborn rebellion. His servants rightly regarded this as punishment from God.

악령: 주님은 사울의 고집스런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그가 악한 영에 눌리는 일을 허락하셨다. 그의 종들은 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대로 판단했다.

D. Seek out a skillful harpist: Saul's servants urged him to commission them to find a musician to play for him during his attacks. They rightly believed this would bring relief to Saul's oppression. Therefore, Saul ordered them to search for someone who could play well. Anointed music was known as a catalyst to release the activity of the Spirit (1 Sam 10:5; 2 Kgs. 3:15).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함: 사울의 종들은 그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때 악기 연주하는 자를 찾아오도록 명령할 것을 사울에게 권유했다. 그들은 이것이 사울이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올바르게 믿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울은 그들에게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기름 부음 받은 연주자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부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삼상 10:5; 왕하 3:15).

E. One of Saul's servants already knew of David's skill in music (v. 18). God opened doors to the royal court without David trying to push the door open.

사울의 종들 중 한 명은 다윗이 뛰어난 연주자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18 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열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왕의 궁정의 문을 여셨다.

¹⁸One of the servants answered and said, "Look, I have seen a son of Jesse the Bethlehemite, who is skillful in playing, a mighty man of valor, a man of war, prudent in speech, and a handsome person; and the LORD is with him." ¹⁹Therefore Saul sent messengers to Jesse, and said, "Send me your son David, who is with the sheep." ²⁰And Jesse took a donkey loaded with bread, a skin of wine, and a young goat, and sent them by his son David to Saul. (1 Sam. 16:18-20)

18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혬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한글 KJV: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용기와 (한글 KJV: 강하고 용맹한 자요) 무용과 (한글 KJV: 전사요)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19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20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삼상 16:18-20)

- 1. **Skillful in playing**: David was an accomplished musician, anointed even for Saul's comfort.
 - **솜씨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다윗은 뛰어난 연주자였으며, 사물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
- 2. *Mighty man of valor*: David was both brave and successful in facing danger. The two exploits of killing the lion and the bear justify calling him a mighty, valiant man.

강하고 용맹한 자: 다윗은 용맹할 뿐만 아니라 위험 앞에서도 잘 대처하는 자였다. 사자와 곰을 죽인 그의 업적은 그를 강하고 용맹한 자로 불리게 했다.

- 3. *Man of war*: Possibly David fought marauding Philistines on occasion while tending sheep.
 - 정사: 다윗은 아마도 양을 돌보던 중 가끔 약탈하는 블레셋인들과 싸웠을 것이다.
- 4. **Prudent in speech**: David was skilled in speaking and thus in building relationships.
 - 구변이 있는: 다윗은 언변에 능숙했고, 따라서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능숙했다.
- 5. *Handsome*: David being handsome included him being in good physical condition.
 - 준수한: 다윗은 신체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 6. *The LORD is with him*: The presence of God was evident in David's life.
 -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윗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 F. *Send me your son David*: Hearing of David's outstanding abilities, Saul asked Jesse to send David to him. David impressed Saul, and the king requested him to stay with him permanently.
 -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다윗의 뛰어난 능력들을 듣고는, 사울은 이새에게 다윗을 자신에게 보낼 것을 요청했다. 다윗은 사울을 감동시켰으며, 이 왕은 다윗에게 자신과 함께 계속해서 머물 것을 요청했다.
- G. *David stood before him*: To stand before the king (v 21) means to enter into his service (Gen 41:46). David became one of Saul's armor bearers after being accepted into Saul's court.
 - **다윗이 그 앞에 모셔 서매**: 왕 앞에 모셔 섰다는 것은 (21 절) 그가 고용되었음을 말한다 (창 41:46). 다윗은 사울의 궁에 머무는 것이 허락된 후, 사울의 무기 드는 자 중의 하나가 되었다.
 - ²¹So David came to Saul and stood before him. And he loved him greatly, and he became his armorbearer. ²²Then Saul sent to Jesse, saying, "Please let David stand before me, for he has found favor in my sight." ²³And so it was, whenever the spirit from God was upon Saul, that David would take a harp and play it with his hand. Then Saul would become refreshed and well, and the distressing spirit would depart from him. (1 Sam. 16:21-23)
 - 21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22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삼상 16:21-23)
 - 1. Saul invited his successor into his inner court. It was God's purpose for David to spend a season at the court; therefore the Lord inclined Saul's heart toward David.
 - 사울은 자신의 뒤를 이을 자를 자신의 궁 안으로 초청했다. 다윗이 왕의 궁정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주님은 사울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도록 하셨다.

2. Here we see the workings of God's hand. The king's heart is in the Lord's hand, and He turns it according to His will (Prov. 21:1). David wrote of this truth when exhorting people to "commit their way to Lord" and to rest in Lord, patiently trusting Him to bring His will to pass in their lives (Ps. 37:5-7).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왕의 마음은 주님의 손에 있으며, 그분은 이를 그분의 뜻에 따라 바꾸신다 (잠 21:1). 다윗은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너희 길을 주께 맡기며" 주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을 끈기 있게 신뢰하여서 그분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할 것을 권면할 때에 기록했다 (시 37:5-7).